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성지 주일(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성 에브프시히오스 순교자

성 요한 크리소스토스 성찬예배에서

- 성지 주일 제2응송 / 239. B 302
-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 성지 주일 입당송 / 239. B 304
- 성지 주일 시기송 / 239. B 304
- 사도경: 필립비 4,4-9 / 239. 봉독서 462
- 복음경: 요한 12,1-18 / 240. B 305
- 성지 주일 성모송 / 비고정 축일 성가집 67
- 성지 주일 영성체송 / 241. B 307
- 주의 이름이 이제로부터... 대신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 신랑 예식(오후 1:30)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드리는 조언2”

하느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낳아 키우는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존재 이유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는 모든 것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번창시키고 엄청난 부를 쌓는다 해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이고, 부모의 노력과 수고는 결국 자녀를 게으

름뱅이와 범죄자로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제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락한 사람이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그 돈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라도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무슨 일이란 언제나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 대주간의 의미

교회는 내일부터 성 대주간에 들어간다.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특별한 의미를 느끼게 하는데, 그것은 곧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성 대주간이란 성스러운 영적 여정의 절정이므로 사순대재의 전 기간을 경건하게 보냈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영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지 주일 오후의 신랑 의식(원칙적으로는 성 대월요일 조과)에서 부르는 성가는 이렇게 강조한다. “나의 구세주, 나는 주의 공전을 보고도 거기 들어갈 때 입을 옷이 없도다. 빛을 주시는 이여, 내 영혼의 옷을 찬란히 하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처럼 우리에게는 성 대주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죄로 인해 녹이 슬어버린 영혼을 깨끗이 닦고 덕행으로 우리 영혼의 옷을 빛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골고타의 언덕에 세우고 죄악을 못 박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덕을 빛낼 수 있으며 주님께서 고난 겪으신 이 주간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다.

영적 태만과 무관심은 결코 용납받지 못한다. 특히 이 주간에는 더 그렇다. 교회는 이

렇게 가르친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내린 벌을 무서워하나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회개의 값진 열매를 바칠지어다.”

고난 주간은 이렇게 거룩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주간이다. 위대하다는 것은 이 주간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피조물 전부가 떨고 있었을 때,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희생제가 이루어졌다.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씻어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극히 거룩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다.

성 대주간은 하느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달리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경직된 마음이라도 부드러워지고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미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 미삭 시리아인 IV

신앙의 선견지명(先見之明)

신앙은 신비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 몸의 눈이 감각적인 물체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은 숨겨진 보물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다.

교부들이 말한 대로 몸의 눈이 들인 것처럼 영혼의 눈도 둘이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눈이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 가지 눈으로 자연 속에 감춰진 하느님의 영광과 힘, 지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보며,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 알 수 있다.

같은 눈으로 우리는 영적인 질서와 체계들, 그리고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본다.

그러나 다른 눈으로는 하느님의 거룩한 본성이 발하는 영광을 본다.

우리의 주님이 영적인 신비들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 속에 신앙의 넓은 바다를 열어주신다.

▶ 아타나시아



성 대주간과 부활절 예식 안내

- . 4월 9일 **성지 주일** 오전 8:45 ▷ 조과, 성 요한 크리스소스툼 성찬예배 / 오후 1:30 ▷ 신랑의 예식
- . 4월 10일 성 대월요일 오후 6:00▷신랑의 예식
- . 4월 11일 성 대화요일 오전 9:00▷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오후 6:00 ▷ 신랑의 예식
- . 4월 12일 성 대수요일 오전 9:00▷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오후 7:00 ▷ 성유성사
- . 4월 13일 성 대목요일 오전 9:00▷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30▷주님의 거룩한 고난 예식(12복음 봉독)
- . 4월 14일 성 대금요일 오전 9:00▷대시과(1,3,6시과)
오후 3:00▷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식/오후 7:00▷에빠따피오스 예식
- . 4월 15일 성 대토요일 오전 9:00▷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10:00 ▷ **부활절 예식**, 성 요한 크리스소스툼 성찬예배
- . 4월 16일 **부활 주일** 오전 11:00 ▷ 사랑의 대만과 / 오후 12:30 ▷ 사랑의 오찬
- .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소 식

대교구

■ 성 대주간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일정

- . 성 대수요일 ▷ 성유성사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성 대목요일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성 대금요일
 - . 대시과[1,3,6시과]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식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 에빠따피오스 예식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 성 대토요일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부활 주일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정원 조경 공사

그리스에서 정원 조경 전문가가 와서 수도원의 정원을 다양한 나무들과 꽃들로 아름답게 꾸밀 것입니다. 4월 24일~29일까지 수도원 조경 공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수도원으로 4월 9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원 (031)584-2082, 010-4845-5378)으로 오전10시~12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활절 꽃, 달걀 봉헌 신청

예년과 같이 부활절 달걀과 에빠따피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 받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성당에 기증하는 부분과 신자가 가져가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당 사무실로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달걀 가격도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3월 26일 사순절 제4주일인 성 요한 클리막스 주일에 성찬예배와 함께 집전된 유아세례식에서 판텔레이몬과 요안나의 (Joby Denny / Joanna Denny) 딸이 엘레니 성인의 이름으로 정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엘레니의 대모인 소피아(Sophia Jordan) 교우는 엘레니의 부모를 정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엘레니를 성령께서 항상 돌봐주시길 기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영성의 삶을 영위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대주교 집전 성찬예배

지난 4월 2일 주일에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는 요한 보제와 함께 전주 성모안식 성당에 가서 일라리온 신부와 함께 성찬예배를 거행 하였습니다. 성찬예배 후 대주교께서는 복사단과 모임을 가지셨고, 사랑의 오찬 후에 모든 신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한 회개와 고백성사의 중요성과 신자들과 영적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